

출세한 롯

롯은 소돔을 아주 좋아했다. 애굽 처럼 풍요로운 요단의 도시들 중에서 마지막에 선택한 곳이 소돔이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은 상관 없었다.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이 구출해 준 후에도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았다.

롯이 소돔에 머무는 것은 소돔 왕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감히 왕의 자존심을 건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인질이 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조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돔의 이방인 롯은 짧은 기간 안에 소돔에서 유력한 인물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십사 년을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창세기 19:1

할 일이 없어서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성문은 사회 지도층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공공기관 역할을 했다. 재판, 중요한 거래, 새로운 법률의 공포가 성문에서 이루어졌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짧은 기간에 소돔의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 사람들, 두 천사

롯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맞이한 것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였다. 롯은 보고, 일어났으며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 말하며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가실 것을 간청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했던 행동과 같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있지도 않을 숫자를 줄여가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향했다. 소돔으로 향한 두 사람이 저녁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 대한 기록은 '그 두 천사'로 바뀐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 창세기 18:22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창세기 19:1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 사람이었다. 롯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 천사였다. 중세 사람들의 그림처럼 머리 위에 동그란 링이 있었는지, 새하얀 깃털이 달린 날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롯이 그들을 보았을 때 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범한 사람으로, 롯에게는 천사로 보내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롯에게 소돔을 떠나야 한다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이 지치고 더러운 나그네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서다. 아브라함은 배고프고 목마른 나그네를 보아도 달려나가 맞이할 사람이었다. 사람으로 충분했다. 롯은 천사로 보이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었다. 수준에 맞춰 주신 것이다. 이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4:48